

“제철설비 노하우로 ESCO 시장 두각 나타낼 것”

• • 20여 년간 철강설비 및 산업설비 전문회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온, 포스코 100% 출자회사인 포철기연이 그동안 축적된 엔지니어링 능력과 철강소재를 다룬 기술력을 바탕으로 ESCO사업에 진출했다. 포철기연은 단·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광양제철소와 인근 공장에 에너지절약설비를 채용하고 이를 위해 현장 적용력이 확실한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저급 폐열 회수기술 등을 개발, 기술과 시스템 중심의 ESCO시장 장악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 박정미 기자 psn0304@yahoo.co.kr



▲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포철기연 전경

지난 5월 25일 ESCO로 등록된 포철기연은 공정개선 설비, 노후보일러 및 관련 유틸리티, 연료열원의 대체에너지선정 및 설비대체 분야를 대상으로 ESCO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포철기연은 광양제철소 기계설비의 정비 업무를 시작으로 출발한 포스코의 100% 출자회사다. 정비핵심기술역량에 근간을 두고 제철관련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공사 전문수행업체로 꾸준히 역량을 확대해 왔으며 “철강설비 및 산업설비 전문 회사”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철강시장의 설비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포철기연은, 그러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 플랜트사업으로 역량을 확장하여 환경사업분야, 정유/화학 산업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포철기연은 지난 8월부터 한라전공의 무안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공사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9,000평에 세워지는 1MW 태양광발전소다.

이와 같이 포철기연은 향후 미래기반기술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기업 성장기반인 인재확보와 기술개발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블루오션에도 과감히 뛰어들어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회사의 수익 기반으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㉞



▲ 포철기연이 시공 중인 전남 무안군 1MW 태양광발전소 현장

INTERVIEW _ 포철기연 ESCO 담당 서춘호 과장

☞ 포철기연이 ESCO로 등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에너지 소비산업인 일관제철소 그룹사로서 처음부터 ESCO는 관심사업 분야였습니다. ESCO사업은 향후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SCO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획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인 계획은 우선 광양제철소와 인근의 공장설비 부문에 고효율 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채용한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적용이 확실한 진단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저급 폐열을 유효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ESCO사업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ESCO사업 자체만으로는 전망이 썩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의 국제가격 변동과 정책의 일관성이 이 사업을 하는 기업 재산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ESCO사업에 있어 포철기연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육상 기술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제철설비 정비와 설계, 제작, 시공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를 종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과 철강소재를 다루는 기술력입니다.

☞ ESCO제도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SCO 기술 강국들의 공통사항인 변함없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바랍니다.